



일상의 소소함을  
이야기하는 작가

**민율**

| 예술인명      |         |                                                                                                               |
|-----------|---------|---------------------------------------------------------------------------------------------------------------|
| 소 개       |         | <p>일상의 소소함을 시리즈로 만들어 이야기하는 작가입니다.</p> <p>대표적인 시리즈 작품으로 &lt;상상씨앗이야기&gt;, &lt;나무의자&gt;, &lt;기억하다&gt;가 있습니다.</p> |
| 주요<br>교 이 | 1999.2  | 세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과학과 학사                                                                                         |
|           | 2009.8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 판화 학사                                                                                       |
|           | 2009.8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 연계전공                                                                                             |
| 개 인 전     | 2020.09 | <the chair on the tree >아트스페이스 큐브1갤러리, 경기                                                                     |
|           | 2020.06 | <나무의자>, 비롬갤러리, 서울                                                                                             |
|           | 2020.3  | <소소한 이야기 둘> BGN 갤러리x롯데타워, 서울                                                                                  |
|           |         | 외 24회                                                                                                         |
| 단 체 전     | 2020.6  | <심심한하루-민율 전은비 2인전>움갤러리, 경기                                                                                    |
|           | 2019.1  | <다시, 봄:KA12>, 마루갤러리, 서울                                                                                       |
|           | 2020.2  | <From trip-여행으로부터>, 갤러리 엘르, 서울                                                                                |
|           | 2020.1  | <시작: from the new wave>, 그림손 갤러리, 서울                                                                          |
|           |         | 외 100여회                                                                                                       |
| 소 장       | 2018    | 국립현대 미술관 미술은행                                                                                                 |
| 상 훈       | 2018    | 서울 모던 아트쇼-메세나대상 선정작가                                                                                          |
|           | 2012    | 제16회 나혜석 미술대전 입상                                                                                              |

## 프로젝트명 : <나무의자>, 2012~2020

---

우리가 사는 시대는 풍요로움이 넘쳐난다. 삶의 편리를 위한 물건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며, 알고 싶은 정보 혹은 알고 싶지 않은 정보도 물밀듯이 밀려온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쓸쓸하고 외롭다고 말한다. 나는 그들과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 무엇에서 오는지에 대하여 생각했다. 외롭다는 것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부재 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그것은 단지 '그'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그'가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다. 또한 나를 잘 이해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가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그 이유는 타인이 아무리 나를 잘 이해한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만큼 자신을 이해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로움이란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마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러한 시간의 갖는다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

<나무의자>작업은 이렇게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 잠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데서 시작되었다.



<나무의자>, oil on canvas, 80.3x100, 2017

## 주요전시 : <the Chair on the Tree>



|      |                                                                                                               |
|------|---------------------------------------------------------------------------------------------------------------|
| 전시일정 | 2020.9.3~10.29                                                                                                |
| 전시장소 | 아트스페이스j 큐브1 갤러리<br>(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6)                                                                     |
| 전시소개 | 코로나 시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br>잠깐의 휴식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
| 영상링크 | <a href="https://m.blog.naver.com/artspacej/222079242228">https://m.blog.naver.com/artspacej/222079242228</a> |

## 주요전시 : <나무의자>



## 주요전시 : <나무의자>

---

### 전시 서문

길가의 나무 혹은 도심 공원의 작은 숲, 멀리 보이는 산의 나무 위에 작은 의자를 하나 올려놓는다. 그리고 잠시 마음 한 조각 떨어내어 그 의자 위에 놓아둔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와도, 서늘하거나 어두운 밤이어도 좋다. 조금은 위태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곳이지만 당신과 떠도는 공기만 있는 그곳에서 그때그때의 하늘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바람과 함께 천천히 흔들려보기를 바란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어도 좋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어 외로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다.

# 주요전시 :나무의자

언론보도 스크랩(2020.6.16 메트로 신문)

비움 갤러리, 오는 6월 23일 만을 작가 개인전  
개최

메트로신문 미미족 기자 | 2020-06-16 14:40:11

뉴스듣기   



[메트로신문] 만을 작가가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비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2020년 두번째 개인전으로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신작 14점을 포함해 총 21점의 작품이 전시 될 예정이다.

## 기사 주요 내용(요약)

전시의 주제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파랗게 펼쳐진 하늘, 쪽 뺀어 흔들리는 나무, 그리고 작은 나무 의자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일상이 주는 쉼과 휴식을 전달하려는 데 있다.